

# “화순 오고 건강 좋아져...암 꼭 이겨낼 것”

세밀 요양병원서 만난 영화배우 신성일

“남도 음식·풍광 마음에 들어  
영양·근육상태 최고수준 회복”

“80년 광주서 만난 여인 통해  
5·18 참상 알아...진실 밝혀지길”

“내년 촬영할 영화 ‘행복’ 집필 중”

지난 20일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영화배우 중 한 명인 신성일(80)씨를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다. 화순 도곡의 온천수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찾았다고 밝힌 그에게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에너지가 느껴졌다. 하얗게 세다 못해 들성 들성 머리카락이 빠져나간 모습이었지만 신씨는 인터뷰 내내 80세 노인답지 않은 당찬 면모를 보였다.

“지난 6월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된 3cm 정도의 암세포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이 어렵고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율이 30%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양반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신씨는 지난여름 폐암 3기(말기)진단을 받았다. 그는 “지난 초여름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새까만 핏덩어리가 나오더라”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큰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결과 폐암이었다”고 말했다.

“의사한테 암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골프를 해도 괜찮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웃더라고요. 생사가 달렸는데 골프가 문제냐고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쉬워서요. 오래오래 골프를 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물었죠.”

35년 전 담배를 끊은 그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의사에게 원인을 물으니 담배, 스트레스, 가족력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수감생활 때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사가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겨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암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암 투병 환자나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갖고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7월부터 5주 동안 본격적인 항암치료에 들어갔다. 신씨는 “치료 시작 후 2~3주가 지나니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며 자신의 기초체력이 강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또, 인터뷰 내내 암과의 투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21일)이 화순에 온 지 일주일째다. 이곳이 온열고주파 치료를 가장 잘하는 곳이라는 추



폐암 3기 선고를 받고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인 영화배우 신성일씨는 꾸준한 치료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암을 꼭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천을 받아 오게 됐는데 건강이 많이 호전된 것 같아 좋다”며 “온천수를 이용해 치료를 하고 주변에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남도의 음식과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영양사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강석현)에게 모시고 오라고도 했죠. 이곳에서 지내면서 검사 결과도 굉장히 좋고 영양상태, 근육상태 등 모든 것이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신씨는 또 한국의 대표적 ‘로맨티스트’답게 광주 여인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영화협회 광주지부에서 사무 일을 보고 있었던 정 모 여인과의 만남이었다. 참 예뻐던 그 여인과 5·18 민주화운동이 끝난 이후에 소식이 단절돼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던 과거도 회상했다.

그는 “80년 5월 당시 그 여인이 울면서 전화를 해와 그때의 참상을 잘 알고 있었다”며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전두환 군부가 언론을 통제해서 불량배와 간첩들이 일어난 소문사태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 여인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비극적 상황을 알게 됐다”며 아픈 심정을 비추기도 했다. 그는 “5·18 이후에 그 여인이 종적을 감춰 수소문 끝에 5·18 총격으로 인해 카톨릭에 귀의해 수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슴이 아프다. 그때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제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갔다. 그는 2018년 ‘행복’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시작할 예정

이다. 원래 올해 제작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는 바람에 미뤄졌다.

“요즘 한국 영화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분노하고, 사회 비판하면서 복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은 조부모와 손자까지 등장하는 3대의 이야기다. 현재 시나리오를 다듬고 있다. 신성일은 “나와 윤정희가 조부모를 맡고, 그 다음 세대로 안성기와 박중훈, 손사선, 노여우, 김민희가 맡는 젊은 연기자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나리오가 수정되면 배우들과 구체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그는 얼마 전 읽은 김홍신의 소설 ‘바람이 그린 그림’에 감명받아 영화화 작업도 시작했다. 김홍신과는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을 하면서 ‘형님, 아우’ 하는 사이. 신성일은 “깨끗한 멜로인데도 서스펜스가 있다”며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영화가 될 것 같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두 편의 영화 제작 외에도 고향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다.

“경북 영천에 한옥 ‘성일가’를 지었어요. 지금 그곳에서 지내고 있죠. 나중에 내가 죽고나면 지자체에 박물관으로 써달라고 기증할 생각입니다. 집 주변 길이 정말 좋은데 주변에 들레 길도 만들 생각입니다. 박물관과 들레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한 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송영옥, 고향 제주에 돌아가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컬렉션 ‘탄생 100년’ 제주展



‘여자미술사’

### 2월 25일까지 순회 전시

‘송영옥, 제주 고향에 돌아가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난 7~9월에 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했던 하정웅컬렉션 ‘송영옥 탄생 100년’ 전 순회전을 내년 2월 25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14일 시작된 이번 순회전은 제주 조천 출신 재일 1세대 대표작가인 송영옥의 예술세계를 고향에 알리고, 제주도민의 문화자극을 고취시키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의 공동주최로 추진됐다. 또 이번 순회전은 지난 2014년 전국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 하정웅컬렉션 특선전 이후 3년만의 전시로 하정웅컬렉션의 지속적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이기도 하다.

전시작품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하정웅컬렉션 작품 50여점과 송영옥 작가가 1992년 이후 고향 제주를 왕래하며 지인들에게 선물로 준 제주 풍경의 수채화와 드로잉 소품 10여점이 추가됐다.

송영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정착해 일관된 주제의식과 독창적 작품세계를 인정받으면서 재일한국인 1세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소학교 4학년이었던 1926년, 측량기사인 부친을 찾아 도일한 이후 일본에서 거주하다 1999년 도쿄에서 영면했다.

유카시카지 작가상 수상(1943), 자유미술협회전 평화상 수상(1990) 등 현대 일본 회단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송영옥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로 분류되었지만, 실상 송영옥은 남한, 북한,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경계인이었다.

디아스포라(Diaspora)와 시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송영옥의 작품에는 특유의 우울함, 우울함, 차가움이 깔려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으로서의 실존적 고민을 비롯하여 사회적 차별, 김대중 납치사건, 베트남 전쟁, 히로시마 원폭문제, 5·18광주민주화운동, 인권 유린 등의 문제를 작품 속에 그려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화담론 계간지 ‘창’ 40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40호(사진)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 기획’은 CT(문화기술) 연구원 광주 설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지상 중계했다. ‘CT연구원 광주 설립, 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김상운 CT연구원원장, 박순보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장, 신현대 광주시 문화산업과장, 이철우 전남대 문화기술연구소장이 기획좌담자로 참여했다.

‘문화전단’ 코너에서는 김현영 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 정진삼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장,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등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

또 최철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소개했으며 ‘수혜대상에서 세상의 주인공으로’를 주제로 32개 청년문화단체의 연대 협업기구인 ‘상상 실현 네트워크’의 김서영 간사자 청년들의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



해 말한다. ‘문화현장’에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창의도시사업단장이 다루고 있으며 안태기 광주대 교수의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문화 보존’에 대한 글을 실었다. ‘창’은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통 소품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규방’ 개설



우리의 전통 소품을 만들어보고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일반인들이 박물관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규방’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물관 규방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리의 전통 소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천연염료를 소재로 옛 여인들처럼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창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천연염료는 보온성과 흡습성, 통기성이 뛰어난 생활 공예 소재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양(羊)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천연염료와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물별팅, 니들벨팅 등 다양한 전통 기법 하나하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오방색을 이용한 양모 볼 작품, 황금 개미 해 기념 강아지 마스크, 전통문양 활용 동전지갑, 파우치, 손가방, 베레모 등을 만들어보는 기회도 갖는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